

지역 매 아 리

부안군의회 임시회 내달1일까지

제8대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가 23일부터 제293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월 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는 전반기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로 2018년도 실과 소별 군정에 관한 보고와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한수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부안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을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군민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부안 군의회는 새만금사업의 시발점이자 기공식 장소인 부안군만 새만금 사업 관련 정부기관이 없는 점을 규탄하며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시의회 임시회 27일까지

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는 제8대 정읍시의회 235회 임시회를 23일 개최, 7월 27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다.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조상중의원은 정읍시가 고령사회로 접어들어 그만큼 경로당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TV,냉장고, 에어컨 등 8개 품목으로 제한된 지원품목을 공기청정기, 열압축정기, 밥솥 등 노인 건강과 직결되는 품목들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로당 지원품목을 확대하여 맞춤형 노인복지를 실현하자고 주장했다.

이도형 의원은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과 손해에 적극적 대응을 주문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선 7기에는 ▲잘못된 결정에 변명하지 말고 신속하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행정을 펼칠 것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은 과감히 떼어 고칠 것 ▲시민생활에 영향을 주는 공사와 제도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알려져 시민의 이해를 구할 것 ▲인사고과 때문에 잘못된 것을 곧바로 시정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임시회에는 민선7기 조직개편을 위한 정읍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6건의 안건심사를 마치고, 시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2018년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청취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취임 후 첫 부안읍 방문

군민과의 공감대 형성 · 행정이 주민곁에 다가서

민선 7기 부안군이 주민이 주인이 되는 군정을 펼치려고 권익현 군수가 일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민생을 직접 챙기는 현장행정이 생활 밀착형 여론 수렴과 역동적인 군정의 지로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 행정이 주민 곁에 다가가고 있다.

군민들의 여론을 직접 찾아 나선 권익현 군수는 항상 낮은 자세와 주민을 섬기는 마음으로 23일 부안읍을 방문 진솔한 여론을 수렴해 군정발전의 자양분으로 삼겠다는 의도에서 군민과의 폭넓은 접촉과 대화를 통해 큰 화합, 열린 소통 부안 만들기에 군민 모두가 활짝 열어 주민이 참여하는 군정을 펼치고 있다.

"미래로 세계로, 생동하는 부안"을 슬로건 삼아 군정을 추진해온 권익현 군수는 민선 7기의 군정 역점 사업을 위하여 부안의 희망찬 미래를 함께 이야기하는 장을 마련 주민에게 다가

가는 소통행정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권익현 군수는 초도방문은 일 중심 군정운영 방향에 따라 직원들이 도열해 파이팅을 외치거나 주민을 동원해 박수를 유도하고 민생탐방시 실·과·소 직원들을 줄줄이 대동하는 관행을 완전히 없앴다.

특히 부안읍 초도방문에서는 군수를

위한 별도의 좌석을 마련하지 않고 현장의 주민과 같은 자리에 앉아 부안읍장의 업무보고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초도방문은 군민과 함께 생동하는 부안, 완전히 새로운 부안을 열어가기 위한 뜻 깊은 자리이다"며 "발견어블이고 묵묵히 일로 평가 받는 일 잘하는 군수가 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가 23일 부안읍을 방문했다.

고창군, 폭염 대처 총력 대응

유기상 군수 "폭염피해 최소화 안전" 당부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지난 11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이후 열흘 이상 폭염이 지속되고 있고 앞으로 33°C~34°C의 높은 기온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주민 피해가 없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군은 23일 유기상 군수 주재로 '폭염대응 현안회의'를 갖고 간부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부서와 읍·면별 폭염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운영

질환 발생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현재 군은 폭염 종합대책 T/F팀 가동, 무더위쉼터(602개소) 운영관리,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근로자 휴식시간제 운영, 폭염 군민행동요령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한 농작물과 가축보호 대책을 점검하는 등 군민의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응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을 꼼꼼하게 재점검하고 대응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그늘막 설치(5개소), 도로 살수차 운영(1대), 열염비치(3개소), 무더위 쉼터 표지판 교체(602개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폭염 저감대책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적극 추진 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보건소, 안전요원 대상 심폐 소생술 교육

정읍시보건소가 최근 본격적인 휴가와 물놀이철을 맞아 각 시설의 안전요원들을 대상으로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

보건소는 "내장산문화관광길 가설 물놀이장 안전 요원과 국민여가캠핑장 시설관리 요원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과 심폐 소생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보건소 관계자는 "폭염과 물놀이 사고 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지나 마비와 같은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응급처치 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교육은 대한심폐소생협회가 인정한 전문 강사가 진행했다. 심폐 소생술과 자동심장 충격기 이론 교육,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 병행 심폐 소생술 실

습, 자동심장 충격기 실습, 상황별 심폐 소생술 실습 등 실제 다양한 발생 사례를 예로 들어 상황별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했다.

시는 "정읍·고창·부안 3개 시군이 추진 중인 '서남권 지역응급의료센터 구축 지역행복 생활권 협력사업'의 성과 공적인 추진과 공무원, 그리고 일반시민들의 응급 처치 능력 향상을 통해 최적의 응급의료 전달 체계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 스마트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내장산 캠핑장, 스마트 캠핑장으로 탈바꿈

공공와이파이 구축 마쳐... 내달부터 인터넷 무료 이용 가능

내장산 국민여가캠핑장(이하 캠핑장)이 스마트 캠핑장으로 탈바꿈했다.

캠핑장 내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이 완료돼 8월1일부터 캠핑장을 찾는 관광객은 누구나 무료로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다.

시는 1억2,000만원을 들여 기가대역 속도를 지원하는 무선 AP 8개소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스마트 폰과 태블릿PC, 노트북 등 휴대용 단말기에서 Public-wifi에 접속하면 통신비에 구애받지 않고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시는 구절초 테마공원과 세계절꽃동산, 내장산 리조트 관광지, 백

제요정 정읍시 관광지에 12월 말까지 공공와이파이 사업을 확대해 구축한다는 예정이다.

내장산 문화관광 내 조성돼 있는 캠핑장은 지난 2015년 개장했다. 지난 한 해 2만여명이 찾은 정도로 짧은 시간 전국 캠핑 명소 자리 잡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공공와이 구축으로 캠핑장을 찾은 사람은 누구나 통신요금 부담 없이 마음껏 무선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정보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도시재생대학 기본과정 수료식 성료

공동체별 특성 맞는 주민참여 사업 발굴 · 역량강화교육

정읍시가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와 시책 일환으로 운영해온 도시재생대학(1단계) 기본과정 수료식이 지난 20일 내장산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있었다.

관련해 시는 이달 11일부터 20일까지 주민참여사업 발굴과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 대상은 장명동 주민자치위원회와 중앙상가 발전협의회, 정읍 문화체험연구회, 코아투 청년가 등 4개 단체다.

각 단체는 도시재생대학을 통해 현안 사업을 직접 발굴했다. ▲장명동 주민자치위원회 = 각사더미 음악회, 장명동 정동 속 추억사진 찾기 ▲중앙상가발전협의회 = 중앙로 야간조명과 정읍을 상징하는 분수, 청소년 품목 조성 ▲정읍문화체험연구회 = 설레는 정읍여행을 위한 정읍 원도심지역 조사, 골목투어코스 개발 ▲코아투

천년가 = 코아투 패밀리야외 및 프리마켓, 실버커뮤니티센터, 코아투 갤러리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21일에는 전남 광주를 찾아 송정역 시장 상가 활성화와 앙림동 역사문화마을 및 마을 관광해설사 운영, 도시재생공동체센터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벤치마킹했다.

유진섭 시장은 "도시재생대학(1단계) 기본 과정 수료를 계기로 도심재생에 대한 해 주민 참여가 활발해 집은 물론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도시재생대학을 수료한 주민들은 "도시재생이라는 주제가 처음에는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교육을 통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도시재생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선택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오천년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갈끔함을 한병 술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열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국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부안강산뽕주
Premium Ohdi Wine

GIFT SET 1호 | 750ml 2ea,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뽕뽕2ea/12%, 복분자1ea/13%, 1ea, 2ea/13%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